

2017 린튼리더십

미국 Stony Point Center 교육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2017년 2월 6일 - 2월 16일

지도교수: 이인수 (생명시스템과학과), 이혜순 (간호학과)

참여학생: 이종환 (생활체육), 고정현 (수학교육), 김형유 (특허법학), 임준서 (식영), 강혜주 (식영), 권보연 (식영), 임다운 (아동복지), 서성경 (아동복지), 이혜진 (간호), 홍지원 (간호), 이상지 (간호), 김혜린 (간호)

목 차

- 가.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소개
- 나. Stony Point Center 소개
- 다. 교육프로그램 일정
- 라. 교육내용
- 마. 종합평가
- 바. 학생소감문
- 사. 개선사안

가.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소개

2016 학년도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에서 본인의 재성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기독교 신앙인 양성을 목적으로 린튼리더십 교육/봉사 프로그램 개시하였음.

교육/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기독 신앙인으로서 소외받는 이웃을 환대하며, 자신의 재성을 계발하고 이것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삶을 실천함.
2. 학과의 신앙공동체 순장으로 활동하면서, 기독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함.
3. 대학내 신앙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원복음화에 헌신함.

나. 미국 Stony Point Center 소개

1. 국가와 종교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도모한다
2. 미국장로교가 추구하는 근본적 환대를 다종교를 대상으로 실천한다
3. 사회의 평화 지속을 위해 개개인의 독창성을 존중한다
4. 평화와 정의 구현을 위한 비폭력적 행동과 지원을 수행한다
5. 개인 및 그룹 활동을 위한 숙박/회의장소 제공한다

웹사이트: <http://stonypointcenter.org/>

주소: Stony Point Center 17 Cricketown Rd, Stony Point, NY 10980

전화번호: 845-786-5674 / info@stonypointcenter.org

다. 교육프로그램 일정

2017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2017년 2월 6일 - 16일		
날 짜	내 용	담당자
4 (토)	1. 출국 전 모임	이인수, 이혜순
6 (월)	1. 인천국제공항 출국 / 미국 JFK 도착 및 Stony Point Center 입소 2. 교육 프로그램 소개	Simon Park, Rick Ufford-Chase
7 (화)	1. Multi-Faith, Hospitality, Justice 강연 및 분임 토의 2. Multiculture Context in US (Simon Park) 3. 한국 문화 (전통음식 소개)	Simon Park, Rick Ufford-Chase, Unju Lee, Kitty Ufford-Chase, Sherly Fabre, DeDe Adika, Susan Faith
8 (수)	1. Bible Study (Mark 4:35 -41) 2. 시대에 따른 사회의 정의 강의 및 분임 토의	Rick Ufford-Chase, Kitty Ufford-Chase, Simon Park
9 (목)	1. Food Justice 강연 2. Fair Trading 2. Art 체험 (T Shirt 도안) 3. Sweetwater Camp 방문 4. 친교	Will Smith, Amirah Abukughod, Simon Park, Rick Ufford-Chase, Unju Lee,
10 (금)	1. Salvation Army 방문	Dr. Janet Munn, 임선경 교수
11 (토)	1. Mt. Sinai 병원 방문 (동문 과학자와의 토의) 2. Field Trip (미국 문화 탐방: NYC, Colombia 대학 등)	이세연 박사 고인정 간호사
12 (일)	1. 주일 예배 2. 자유 활동	
13 (월)	1. 미국 문화 탐방 (Palisades Center Mall) 2. 친교	Rick Ufford-Chase, Simon Park
14 (화)	1. 미국 문화 탐방 (4인/조, NYC)	자유활동
15 (수)	1. Bible Study (Matt 25:14 - 30) 2. 기독교 교회의 다양성 강의 (Simon Park) 3. T shirt 제작 (Silk Print) 4. 친교	Rick Ufford-Chase, Simon Park
16 (목)	JFK 국제공항 출국	
17 (금)	인천국제공항 도착	

라. 교육내용

▶ Christianity: 기독교 교회의 다양성에 대하여 (Dr. Simon Park)

1. 기독교 교회의 다양성

- 성경의 기록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분파
즉,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다 vs. 오류가 없다' 의 차이로 분리

2. 성령의 관점에서 해석

3. 신앙고백: 사도신경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교회에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나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장하는 WCC 교단의 관점 (WCC 속한 교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총칭한다.)

-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성찰하는 번뇌의 과정이 요구된다.

4. 장로교에서 Predestination의 의미

-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 개인적으로 도전의 명제이며, 고민 없이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일부 기독교인의 경우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한국과 미국 교회의 상이성 (성경적 관점에서)

- '성경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녔다'라는 선민 신앙관은 상황에 따라서 이웃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까?
- 현대에서 사용하는 성경 (또는 성경 말씀)은 오류 없이 기술되었을까? 또한 다양한 외국어로 변환되었을 경우, 그 의미가 본래의 의미와 100% 일치할까?
- 관습과 전통이 상이한 다양한 민족들에게서 각 국가의 언어로 기술했을 경우, 그 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까?
- 장로교에서 목사는 Paster 또는 Teaching elder (다른 장로는 Ruled elder) 이다.
- 교회에서 교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즉,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며, 평등의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 문화적 또는 신앙적 관점이 다름에 대하여 포용하며 고민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자신의 재성을 계발하는 것이 기

독인의 사명입니다.

- 나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다.

6. Stony Point Center에서 도전 받은 것들은 무엇인가?



▶ Fair Global Trading (Rick Ufford-Chase, Unzu Lee)

1. Fair Trading: 글로벌 경제에서 약소국의 재정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195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상황이 현재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음.

- SKIT 구성: 대통령, 재정부장, 재정부장과 친척, 통조림 생산기업주, 소상공인, 생산 노동자 (커피농장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경제상황을 설명한다.
- 단일품목 수출국의 문제점: 수입을 원하는 국가가 없을 때 도산하여 국가 부채 발생
- 그러므로 국가는 다양한 생산품 (농산물 포함)을 생산/소비/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2. 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수입물품을 자국생산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Fiscal Incentives: 공산품 생산 기업의 창업 유도를 위한 국가재정에서 지원
- Tax Competitive Imports: 국내 기업의 수익 보전을 위해 수입품 관세 비율을 높임
- Build Infrastructure: 근대화/산업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재정지원)
- Overvalue the Currency: 환율변동
- Cheap Food Policy: 식료품에 대한 정부 지원. 결과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식품구입 가능. 이와 같은 전략으로 한국은 성장하였으나, 남미 국가는 실패하였음. 그 이유는?
- High Cost ISI (신생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국가재정이 곤란해졌음)
- White Elephant (기업이 신생되었으나, 그 효용성이 Nothing. 일종의 잘못된 투자/기업을 건설했으나 지리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 등. 지진 등으로 투자손실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White elephant 라고 함)
- Military Buildup (국가재정을 정권 유지에 사용)
- Corruptions (경제 파탄)
- Capital Flight (한 국가의 경제가 선순환되지 못하고, 국외로 자본 유출)
- 과학기술 투자 소홀
- 국가재정 파산으로 IMF에서 지원. 단 IMF 구조조정 계획에 순응해야 함. 그 결과, 복지 및 교육예산 삭감, 농업보조금 삭감, 의료혜택 삭감, 기업 지원금 삭감 등 기존 정권 유지에 사용되었던 예산 삭감으로 국민 반감 고조. 이후 환율 하락에 대한 대응법으로 국외자본 유치 등의 대책을 시행하지만, 그 결과 자생적인 화폐순환 대신에 자본의 국외유출이 가속화된 다. (자유무역의 한계성)

3. 참여 학생들의 역할 활동으로 자본의 선순환을 학습하고, 신앙인으로서 삶

의 자세를 토의함.

- Food Justice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농수산물 구매, 지역 소상공인 제품 구매,



▶ Food Justice (Will Smith, Unzoo Lee, Amirah Abulughod, Simon Park)

1. Food Justice: 지구 생태계 보전이 기독교인의 사명인가?

- 생산자, 소비자, 음식으로 제공되는 동식물의 권리
기업형 농산물의 부작용: 과도한 비료와 여러 종류의 화학제 사용 (제초제, 살충제 등) / 유통으로 비용 발생 및 환경오염 (화석연료 사용 등)
- 소비자: 다양한 화학제에 노출된 야채 및 과일 섭취
- 가축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사육법 (협소한 사육 공간) / 짧은 기간에 가축 증체를 목적으로 사료 (먹이)의 최적 조성 또는 배합을 표준화하는 사육법은 동물의 질병발생 증가
- 과도한 항생제 사용
예: 소에게 옥수수 사료 제공 (초본과 식물이 아닌 옥수수 급이로 소의 장 문제 발생)
- 3 요소들이 창조물로서의 소명에 근거하여, 생산-소비되어야 함
- SPC 센터에서 사용되는 야채와 계란 등은 모두 자체 재배/사육으로 얻어지며, 이 과정에서 각 생물의 성장양태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지구생태계 보전
- 더 나아가 SPC 거주자 민 방문자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자 함 (신앙의 실천)

2. Sweetwater Camp 방문 (Ramapoughlunnaape People 거주지)

- 송유관 지하 설치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수자원 및 토양 오염 등)를 충분한 토의와 대책없이 자본 논리적 접근에 대한 저항운동
- 해당지역은 과거 인디언 부족의 영토이었으며, 현재까지도 그들의 삶의 터전임.
-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기독교 종교인으로서의 사명 (Hospitality) 실천



▶ Multi-Faith, Hospitality, and Justice (Rick Ufford-Chase, Unzuu Lee, Simon Park)

1. Stony Point Center의 설립목적

- 국가와 종교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류의 평화와 정의를 도모한다
- 미국장로교가 추구하는 근본적 환대를 다종교를 대상으로 실천한다
- 사회의 평화 지속을 위해 개개인의 독창성을 존중한다
- 평화와 정의 구현을 위한 비폭력적 행동과 지원을 수행한다
- 개인 및 그룹 활동을 위한 숙박/회의장소 제공한다

2. 4인 1조로 Multi Faith, Hospitality, Justice 를 주제로 분임토의 진행

- 각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토론하였고, 각자 본인의 견해와 경험을 나누었음.

3. Multi Faith

- 다양한 종교와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의 국가, 미국에서 대두되는 종교 간 갈등, 인종차별, 소득 불균형에 따른 소외 등 제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도.

Stony Point Center 내 Community of Living Traditions (CLT) 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포용 실천

- 타 종교 및 타 민족의 존중 (기독교, 이슬람, 유대종교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
- 동일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자세 실천 (40 시간 노동/주, 이중에서 50% 시간은 지역사회 봉사 참여)

4. Hospitality

- 다민족 국가에서 평화의 정착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 사회에서 성, 소득, 지위, 교육 등의 차이로 차별이 관습/관행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상황은 개인과 국가의 정체성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이다.
- 평화의 공동체 구성을 위해 소외된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체의 행동은 겸손을 근본으로 하는 환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 Justice

-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또 하나의 사명은 타 종교/민족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 이것 또한 정의실현의 한 영역이다
- 특히 자연생태계의 모든 피조물의 권리를 보존하는 자연친화적 (각 생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본래의 성질과 양태로 생존하게끔 사육하고 돌봄) 접근

법을 시도 (Food Justice)

5. Name Game: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는 동물 울음소리 연계하여 상대의 이름을 익힘.



- ▶ Multicultural Context in the United States (Dr. Simon Park)
다문화사회, 가정 그리고 사회적 시각 (한국사회의 변화, 사회 인식, 제도의 과제)

1. 한국사회의 변화

- 1900년대 일본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의 시련으로부터 50년의 기형경제
-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합리적 결정의 부재
-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치적 독재 및 정경유착의 부정적 요소 발생
- 부의 편중으로 소외계층 발생

2. 사회인식의 변화

- 집단에서 개인중심 사회로 변화
- 개인의 재성 존중 사회로의 전환
- 민족과 언어 그리고 출신 국가가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
- Bicultural society로 성숙

3.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

- Modular 조직에서 Organic 조직으로의 전환: 정부/기업의 여러 조직간 유기적 연결 (열린 의사소통)

- 정부-기업-개인의 개별적 위치에서 통합적 상호작용 (일종의 생태 환경)



▶ Powre, Gender, and The Kingdom of God

- 기독교 신앙에서의 남녀평등 - 역사적 관점에서
- 구세군 대학 탐방 (Dr. Janet Munn, 임선경 교수)

1.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 사회에서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성공적인 Christianity의 모습이다.
- 개인적 신성함, 사회적 책임, 여성 평등은 구세군에서 추구하는 실천 강령이다.

2. 구세군의 역사

- 1865년 영국 감리교 목사인 William Booth와 Catherine Boothrk 창시
- 여성의 권리와 남녀 동등성 주장
- 구세군 활동으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리더십 활동
- 2017년, 127 개국에서 활동
- 안수받은 구세군 사관의 53%는 여성으로 구성

3. 임선경 교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 은혜



- ▶ T shirt 도안 및 제작
 -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소감을 그림으로 표현

H **FO** **J** **P** **M** **F** **L** **F** **T** **Y**
OD **UST** **IT** **A** **A** **IR** **RA**
ICE **ITH** **ITH** **ITH** **RA** **DE**
Stony Point Center

마. 종합평가

1. 언어 이해도 및 문화의 차이: 평소 영어가 준비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특히 타 문화에 대한 포용과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와 같은 경향성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 적응한 '나 중심'의 관성으로 이해됩니다. 박승현 교수님과 이은주 목사님의 적극 기여가 없었다면 본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2. 한국 교회 또는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내용 (유대/이슬람/기독교 상호 환대, LGBTQ 등)과 PC USA의 진보적 관점이 본인의 신앙관에 도전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통해 교육 후반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음의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는 릭 원장님의 공정무역 SKIT은 기독교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재조명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주제를 SKIT으로 학습/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 적용은 교육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다문화 사회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학습은 적절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 차별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평등 실천이 절실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미국의 국가제도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회/교인의 돌봄에 대한 사례 강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동문 선배와의 교감: 뉴욕 주에 정착한 동문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에 큰 무리가 없다면, 선배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전반적으로 교회 또는 우리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됩니다.

바. 학생소감문

1.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수학교육학과 고정현

정의 (Justice)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두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이곳에도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어떤 것이 충족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나눠보았다. 훈련기간이 짧아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정의실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느낀 것은, 나의 권리와 편의가 다른 이들에게는 특권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공동체에서 공평기회 (Equal Opportunity)가 사라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를 다시 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다종교적 (Multi-faith)이라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과연 타종교에 대해 비판하고 배척할 필요성과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에 대해 지금까지 나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대로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곳에서는 아브라함 종교를 시작으로 모든 종교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생각이 나의 결론이 아님에도, 그것만이 사실인 마냥 비판하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은 n차 방정식의 해가 n개임을 고민하지 않고 n개나 될 리 없다고 비판하는 미련한 생각임을 알게 해주었다. 모든 것을 고민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앙적인 문제를 남의 말만을 의지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환대 (Hospitality)라는 개념은 이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가장 쉽게 표현하는 말인 것 같다. 배척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서 차이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것에 대해 “존재 그대로를 받아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는 기득권이었던 포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환대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가장 어렵게 다가왔던 것은 환대였다.

음식정의 (Food justice)라는 것은 근로자, 소비자, 동물 및 토지를 존중하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공정한 분배를 말한다. 이것은 눈앞에 놓인 것만 본다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경작지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 앞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음식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정의의 문제를 보는 것은 어렵지만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에는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과연 “내가 먹는 것이 정의로운 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면 난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알고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것들에도 분명한 유기적인 관계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들의 사고가 놀라웠다. 생각의 폭을 계속 넓혀 갈 수 있는 가능성과 유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내가 가진 틀을 깨고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인디언 구역에 방문하였다. 이곳에 살아가는 인디언들은 자신이 속한 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땅에 속해 살아간다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내 땅이라고 하며 내 땅에 살아간다고 한다. 땅을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반대로 말한다. 반대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에 대해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내가 생각한 결론은 그들은 ‘땅과 사람과 자연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땅에 속해 살아가며 땅에서 주어진 것을 통해 살아가고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유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들의 전통을 고집하는 고지식한 부분은 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막 4:35~41의 말씀을 통해 평소와는 다른 관점을 갖는 방법을 찾았다. 내가 배척하고 두려워했던 것에 대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을 통해 이곳에서 받아들이기 결코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생각에서 환대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배척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공정무역 (Fair trade)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에서부터 썩어 진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낳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 도움은 도움일까 폭력일까에 대한 답은 폭력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기적인 생각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하며 이는 배경까지 이해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계는 유기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폭력이 아닌 도움

가능하게 한다.

마 25:14~30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읽어야겠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통한 이해는 성경을 보다 폭 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2.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법학과 김형유

한남대학교 린튼리더십 프로그램으로 미국 뉴욕주 소재 Stony Point Center를 9박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참여하였다. 기독교인으로서 리더십 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다.

Stony Point Center에서 Justice, Hospitality, Multi-culture, Food Justice, Fair Trade 및 Salvation Army 방문 등 많은 강의와 체험 활동을 수행했다. 이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겪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좋은 경험을 했다.

하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 개인 또는 그룹 간의 토론으로 깊이 있는 생각과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만 강의를 듣다가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팀원들과 토의하면서 의아스러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다. 또한 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른 문화에 대해 깊은 이해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내 입장만이 아닌 다른 입장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Stony Point Center 에서 몇 번의 성경공부를 했다. 성경내용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함께 나누며 성경공부를 했던 것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한층 성숙하고 발전하고 반성하게 된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고 활동했던 것들이 모두 좋았다.

3.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간호학과 김혜린

사실 이번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입국 시, 입국심사에서 스톤 포인트 하우스를 호텔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시작되었다. 나는 공동체 센터라고 말을 했고, 직원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계속 질문을 하다가 결국 이민국사무소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mmigration Office)로 데려다 주었다. 겁이 났다. 나는 출국 전에 미리 입국심사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맞췄다. 하지만, 간단한 답을 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어서 더 이상 무슨 대처를 해야할 지 몰랐었다. 하지만 사무소에서 차분하게 하나하나 대답을 해 나갔고, 직원으로부터 “ok, go”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나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기다린 팀원들에게 미안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너무 당황했고, 두려웠다. 다시 생각해 보니 옛날의 ‘김혜린’이라면 분명히 두려워서 울었을 것인데, 이번에는 두려움에 도전했다.

두 번째로는 Stony Point Center에서 일어났다. 여기는 여러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곳이었다. 내가 배워온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이슬람교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동영상을 상영하고는 대처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도 보았고, 무교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Stony Point Center에는 다른 종교인 사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포용하는 과정을 보면서 낯선 것을 받아드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배척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보면 반대였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포용점의 범위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맞닥뜨리고 해결하는 법에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계기인 것 같다.

이번 프로그램이 1회라서 솔직히 조금 미숙한 면이 많았다고 본다. 다음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확정된 일정과 취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막연하게 미국이라는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취지를 가졌고, 그 취지와 맞지 못해서 너무 많은 불만과 감정소비를 남겼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은 10 일동안 변경된 스케줄에 혼란스러워 했고, 수업에 의문을 가졌고, 본질에 대해 계속 혼란스러워 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엇인지, 무슨 분야인지, 기독교와 관련된 활동,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같이 간 학생들은 기독교 친구들이라 종교와 관련된 수업을 들을 줄 알았고, 머무는 Stony Point Center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물론, 사전조사를 해 가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수업을 들을 줄

도 몰랐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다. 기독교도 아니고 리더쉽도 아니다. 이름을 변경하던지, 프로그램의 취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4.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간호학과 이상지

이번 프로그램은 좋은 점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다.

일단 좋은 점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 환대, 다종교, 다문화 등 - 그 토론 주제도 한국이었다면 생각해보기 힘든 주제였다. 한국에서는 인종, 종교로의 차별을 크게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전에 TV로만 보았던 구세군이나,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으로만 들어왔던 성경책을 한 구절을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토론해 보는 것은 간접체험을 직접체험으로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

그렇지만 난 이 프로그램이 한 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웠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인데, 우리가 배운 것은 다문화, Stony Point Center의 환대, 다종교, Food Justice 등 여러 가지인데, 이 주제가 무슨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묶어 줄 하나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미국을 다녀온 후 굳이 기독교인들을 뽑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느꼈고,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Stony Point Center 가 너무 외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러 온 건지 그냥 Stony Point Center를 배우러 온 것인지 헷갈렸다. 맨 처음 우리가 미국가기 전에 몇 번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나는 숙소에서는 잠만 자고 숙소에서 강의를 들으러 여기저기를 나가는 줄 알았는데 강의도 대부분은 이곳에서 듣고 그나마 몇 번의 외부로 나가는 기회에서도 눈이 내리면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해야만 했다. 미국에 오는 일은 쉽지 않다. 미국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만 하는데 그 10일을 너무 숙소 위주로 보내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으로 보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1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다른 이는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가질 것이다. 다음의 이 프로그램이 그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장점과 단점으로 올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아쉬움들을 모두 고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난 이 프로그램이 한 번이 아쉽다고 없어지기엔 너무 아까운 프로그램인 것 같다. 우리의 느낀 점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나가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5.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간호학과 홍지원

학교에서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미국으로 10일 동안 떠나게 되었다. 가기 전부터 같이 가는 교수님, 친구들과 모여 스터디를 했다. 가기 전에 조사한 내용들이 Stony Point Center 에 관한 내용이나 가서 들을 강의들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처음에 SPC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조사는 했지만 확실히 SPC 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냥 단순히 숙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줄 알았고 그냥 잠만 자는 장소인줄 알았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SPC는 단순히 숙소의 의미를 넘어선 장소임을 알게 되었다. SPC를 소개하는 주요 세 단어들이다. Justice, Hospitality, Multi-faith 이 세단어가 SPC를 소개하는 단어로 첫 번째 강의를 되었다. 정의란 것은 Food Justice로부터 배웠다. SPC에서 직접 농사하고 생산하고 식당까지 도착하는 생산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로 다가갔고, 환대라는 것은 어떤 종교, 레즈, 게이, 트랜스젠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편견 없이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종교도 배척하지 않고 인정해줌을 의미한다.

난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과 도전받았던 부분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편견으로 푹푹 뭉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던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 판단해야하는데, 난 항상 색안경을 끼고 먼저 바라보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점은 SPC에 있는 사람들도 평범한 하나의 인간인데 정말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단1%의 편견도 없이 환대 해줄 수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나 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었다. SPC라는 곳이 나에게서 너무나도 다른 세상 같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평소 할 수 없었던 생각을 하게 해주는 SPC자체로 나에게 도전과 의문을 품게 하는 장소였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인디언이 살고 있는 숲속으로 찾아갔었다. 숲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었는데 원주민을 보니 너무 신기했고 내가 그려왔던 이미지와는 달랐다. 인디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인디언이 했던 말 중 가장 인상이 깊고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는 말이 있다. ' 숲 자체가, 강자체가 우이다.' 라는 말을 해주었다. 그들은 산하나 강하나 숲 하나를 그냥 그 자체. 나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지키려하고 싸워나가고 있었다. 미국에 와서 다 새로웠지만 한 사람 한사람의 새로운 마인드나 생각을 듣고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하루는 구세군에 방문하였고 여 교장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주요

주제는 여성 평등과 관련된 내용 이었다,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아직도 현시대에서 문제가 되는 주제인 것 같아 평소 평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더불어 다양한 생각을 접목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교장선생님을 보니 너무 멋있었고 이런 것 또한 여성들도 다 할 수 있고 평등으로 가는 표본 중 하나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다양한 강의와 SPC를 경험하면서 열흘 동안 느낀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다.

내가 경험한 이 프로그램을 한단어로 표현하자면 'new'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냥 흘러오는 데로 시키는 대로 남들이 보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며 산 나에게 SPC는 새로운 그 자체였다.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시각 내가 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는 없지만 그냥 이 자체를 보고 느끼는 것이 신기했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받았던 도전은 인간이 순수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과연 한계가 있을까 라는 것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는 한 사람을 한 사람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바라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어도 내 마음을 속일 순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은 인간을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만 바라본다. 이렇게 살아온 나로서 그것이 가능 한 일 일까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자신도 자신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아직 생각이 어려서 이기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점들에 있어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살면서 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으며, 약간은 생각의 혼란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매우 좋은 경험이었고 잊지 못할 미국에서의 열흘 이었다,

6.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아동복지학과 임다빈

나는 해외에 가는 것이 처음이어서 미국 출발하기 전부터 너무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 미국에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순간부터 조금씩 역경이 생기기 시작했다. 해외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챙길 것이 많았다. 그리고 국내여행과는 다른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발했다. 미국에 도착해 Stony Point Center에 갔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얼떨떨해서 “이곳이 미국이 맞나” 하면서 계속 둘러보고 미국 사람들을 관찰했다. 미국 도착하고 첫 끼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맞지 않았다. 나는 원래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김치를 많이 먹는데, 여기는 음식이 다 느끼하고 짜고 그랬다. 하지만 음식 부분에서는 10일 동안 있으니까 새롭고 맛있기도 하고 이렇게 차차 적응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3일은 Stony Point Center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Community for Living Traditionary (CLT)에서 정의, 환대, 다종교를 실천하는 부분이다. 배우면서 정말 정의롭고 멋진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는 기독교인데 다종교를 이해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의문감이 들었다. 타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나도 원래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인정과 이해가 어디까지의 선인지를 강의들 들으면서 의문이 생겨 계속 고민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 나갔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닌 기독교의 종교를 가진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듣고 배웠고 느꼈는데 이 곳에서는 아니라고 하니 많은 혼란이 있었다. 동성애를 떠나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나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닌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됐다. 한국교회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강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생각해왔던 것과 많이 다르니까 거부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아닌 생각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배운 것뿐만 아니라 직접 미국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것도 너무나 많다. 여행을 하면서 미국사람들과 소통하고 상상만 해보았던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주변사람들을 위한 선물들을 사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찰하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보며 ‘여기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등 많은 것을 느꼈다.

미국에서 10일 동안 지내면서 그냥 놀러온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이 너무나 좋았고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10일 동안 같이 지낸 친구들, 오빠들, 언니들, 교수님들, Stony Point Center의 사람들 또한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못 잊을 것 같다. 많은 혼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행복한 여행이었다.

7.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간호학과 이해진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의 환대와 Multi-faith 에 관한 내용은 나에게 있어서는 매우 도전적인 부분이였다. 서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여정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종교나 인종이나 또는 정체성을 먼저 보기보단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 성경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경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웠다. 비난하는 것 자체로 매우 오만한 것이며, 겸손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10일 동안 SPC에 머무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SPC는 주위의 모든 작은 것들 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나무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가장 크게 마음으로 다가온 것 역시 같다. 모든 사람은 인종에 상관없이, 종교나 정체성에 상관없이 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받아야 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곳에서 배운 것 중 아직도 나에게는 버거운 것이 있고, 계속해서 도전 받아지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 모두가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생각에만 멈춰 있지 않고 여러 생각을 받아드리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8.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생활체육학과 이종환

린튼글로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정말 기쁘고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기에 앞서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의 부분들에 대해 조금은 안 좋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든 곳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각 학과신앙공동체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팀을 꾸려 출발하게 되었을 때 선교단체에서 경험했던 “작은 것에도 배려하려고 존중하려는 모습”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얘기하고 서로의 문제를 대화와 조금은 격양된 토론을 통해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이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후에는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나의 의견을 숨기고 상대에게 따라가는 것이 존중과 배려일까, 아니면 나의 주장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들음으로서 서로에 대해 더 알고 맞추어 가는 과정이 존중과 배려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스톤 포인트 센터의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 한국 기독교 신앙에서 배우기 어렵고 배척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다른 시각에서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화가 나기도 하여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시간을 통해 점점 더 이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여기서 들은 많은 내용들의 강의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올바른 앎을 갖게 하였습니다. 많은 강의를 들었고 그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온 결과물들이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내용들을 다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가장 확실하게 느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정죄가 아니었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온갖 많은 내용들을 짜 맞추어 어떠한 권면의 말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약자였던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시고, 그 당시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안식일에 일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한 잘못된 수많은 행동들이 생각났고,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

조차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으로 생각하기에, 그 선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피해를 봐야하는지, 또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서 교회의 검사와 판사가 되어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밑바닥까지 죄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많은 이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하면서 살아 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정말 다양한 생각을 통해 고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9.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식품영양학과 권보연

이번 미국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이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처음 나는, 제한된 인원수 때문에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간절하게 바라고 고대하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투입되어 10일간의 프로그램을 잘 마쳤고 나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안고 오게 되었다. 신앙적인 면과 내 인생에 대한 면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배우고 성찰하게 되었다.

먼저 신앙적인 면에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중 SPC에서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던 말씀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한남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내적으로 많은 충돌과 도전을 품게 되었다. 성경말씀을 마주하기 전 그곳에서의 다른 문화로 인한 사고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내적으로 받아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진전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SPC에서는 우리가 받아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조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의 폭을 좁혀 나갔다.

특히 프로그램 일정 중 구세군 학교를 방문하여 한남대학교 선배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과 조언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다른 위대하고 높으신 분의 강연보다 같은 한남대학교 학생이셨던 선배님께서 지금 뉴욕에서의 일을 하고 계시는 순간까지의 삶의 과정을 듣는 강연이 더 의미 있고 많은 도전을 얻으며 감동을 받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선배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힘든 순간마다 신앙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셨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 내 인생의 미래와 앞날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기대보단 걱정이 앞섰던 나에게 선배님을 통해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다.

또한 10일간의 프로그램을 함께한 새로운 12명의 학생들과 지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깨달았던 시간들이었다.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의 내 모습과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가 얼마나 다른지, 또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며 개선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또 10일 중 3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과 자유여행들이 그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시야의 폭과 사고들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에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었고 프로그램 참여 전에 여행은 '사치'라고 정의했던 나에게 여행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씬'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번 미국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은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신앙적, 사회적, 개인 삶의 성찰 등 여러 분야를 배우고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었다. 여러 분야에서 나를 발견하고 개선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과정 그 자체가 충분히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자신한다. 나에게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교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다.

10.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식품영양학과 임준서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에 임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몇 회의 걸친 오리엔테이션과 토의모임이 있었다. 린튼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뉴욕에 간다는 설렘을 잠시 접고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나를 중심에 둔 프로그램이 아닌 타인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기대를 갖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여러 주제를 다룬 강의 및 토의들과 원주민 시위지 방문, 구세군 사관학교 방문, 투어 및 쇼핑 등이 있었다. 강의 및 토의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 중에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기억할 수 있을 내용이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확실히 깨닫고 얻은 것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답이라 자부하고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고이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스와 다르게 리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여태껏 살아 온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조금씩 성장된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송유관 설치를 반대하는 원주민을 만나러갔을 때에는 뉴스에서 보던 논제를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심각성이 조금 더 와 닿았다. 기술과 함께 인식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 현대사회에서, 또 선진국 미국에서 이러한 인종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 나의 인식과 많이 달랐던 탓에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몰랐을 뿐 모든 지역 곳곳에서 문화와 인종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당장으로써는 기도로 응원하고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외에는 상황을 도울 방법이 없지만 알고 있다는 것으로도 린튼 리더십팀이 문화와 인종 차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 발짝 큰 기여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자신한다.

대부분의 일정을 마치고 뉴욕 시티, 맨해튼을 이틀에 걸쳐 자유롭게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의 여신상, 소호, 첼시마켓, 타임즈스퀘어 등을 오가며 우리나라와 다른 지하철, 거리, 신호, 교통, 식사문화 등 모든 것이 장단점과 상관없이 다름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다가와 좋았고, 또 잠깐은 강의와 토의 등의 고심에서 벗어나 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다음의 일정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강의와 의견을 조율하는 토의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된 자유 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적절히 포함되어 부담 없는 린튼 리더십 프로그램이 된 것 같다.

11. 2016 린튼리더십 프로그램: Stony Point Center 방문기

식품영양학과 강혜주

이번 미국 프로그램에서는 뉴욕주 소재 Stony Point Center를 방문하여, 10일 동안 지냈다.

처음에는 강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모르고 갔던 거라 당황스러움도 많았고 처음 듣는 그런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 어려움도 있었다. 우선 처음 가서 들었던 강의는 다종교 환대 사회정의에 대해서 들었다. 이 강의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던 건 다종교뿐만 아니라 LGBTQ에 대한 인식이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LGBTQ가 절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종교 또한 인정하지 않고 전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곳은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것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니 나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통역해서 전달 받는 말의 한계를 느껴서 의사소통이 힘들음을 느꼈다. 성경 또한 사람이 번역해서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처럼 통역을 해주다보니 그런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며 내가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다보니 소통의 부재가 느껴서 좀 아쉬웠던 대화가 가득했던 거 같다.

또한 food justice에 대해서 듣고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던 거 같다. 사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자연을 생각하고 음식을 생각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한 발 앞서서 나아가는 모습에 크게 와 닿았다. 또한 단풍나무 시럽을 직접 해보는 과정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신기하고 놀라웠는데 다른 외국인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에 문화가 정말 다르구나를 느꼈던 거 같다.

공정무역을 배우는 시간에는 공정무역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열심히 설명해주시고 재미있게 게임을 통해서 해주시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집중도 잘 할 수 있었는데 그 단어 자체도 어려운 공정무역을 통역으로 듣는 것도 어려웠고 이게 게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두 배로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거 같았다. 하지만 그 상황을 재밌게 풀어주시는 모습에 재밌게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로 기억에 남는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사실 접근 방법 또는 생각의 전환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수업을 들으면 아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너무 다 수용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도 했다. 새로운 접

근 방법을 알려주시고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풀어주셔서 신선하긴 했지만 그 방법 또한 개인적인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들으면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모든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국에선 직접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었고 신선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컸고 의견의 대립도 가끔 있었지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사. 개선사안

1. 학생 선발 및 교육

- 학생 선발: 기회의 균등을 위해 참여 학생의 적절한 성비 배분
- 예비 교육: 교육 내용 및 문화 소개 (Stony Point Center 웹사이트 등)

2. 미국/뉴욕 문화 교류

- 대중문화 경험과 역사와 예술 영역 체험 프로그램 (박물관 등을 필수 관람 일정 포함)
- 학생 주도 프로그램
(한국음식 조리 / 센터내 농장 체험 등)

3. 미주 동문과의 만남

- 미국에서 활동 중인 동문 과학자/교수의 강연
- 기독교 신앙인의 경험과 삶을 공유